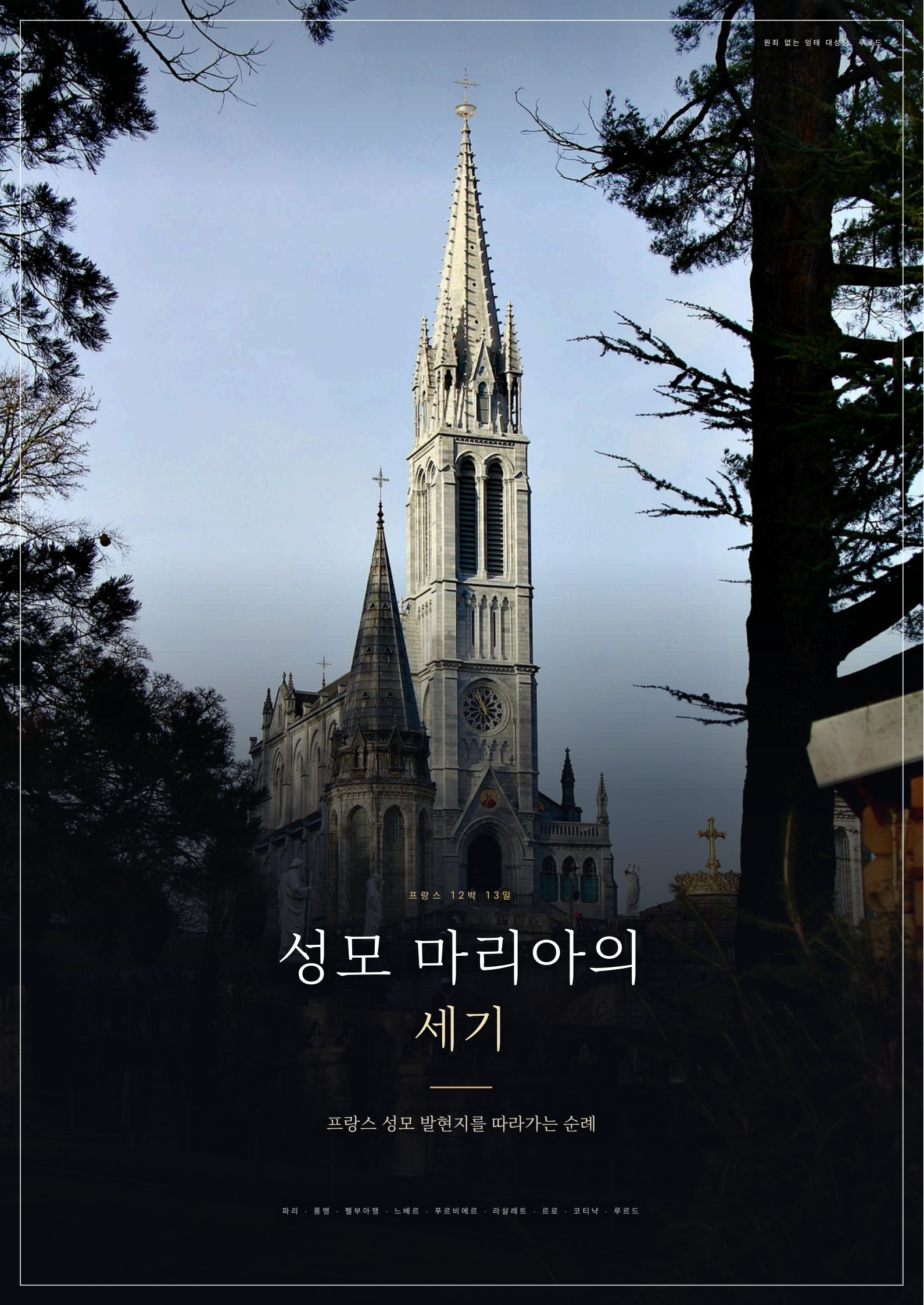


프랑스 12박 13일

성모 마리아의 세기

프랑스 성모 발현지를 따라가는 순례

파리 · 퐁맹 · 펠부아쟁 · 느베르 · 푸르비에르 · 라살레트 · 르로 · 코티낙 · 루르드

성모님께서 프랑스를 찾아오신 곳

뤼 뒤 박에서 마사비엘 동굴까지 이어지는 성모 순례.



마사비엘 동굴, 루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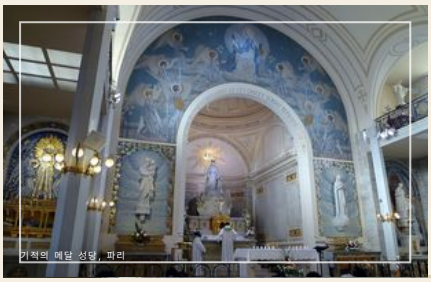
파리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스물네 살의 수련 수녀. 산속의 두 목동. 전쟁이 한창이던 겨울밤의 시골 아이들. 죽음을 앞둔 한 가정부. 루르드의 가난한 소녀. 한 세기가 넘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각 여정지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목격한 **증인들**,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하는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코티냑과 **르로**의 오랜 전승에서 19세기의 큰 사건들까지, **퐁맹**에서 **펠부아쟁**까지 걸어온 길은 느베르에서 숨은 삶을 살았던 **베르나데트**를 만난 뒤 마침내 **루르드**에 이릅니다.

네 개의 장,
하나의 만남

가장 작은 이들과 성모님의 만남, 그리고 그 메시지와 세상의 만남.


기적의 메달 성당, 파리

제 I 장

메달과 희망

파리 · 퐁맹 · 1 – 3일차

뤼 뒤 박, 승리의 성모 대성당, 그리고 퐁맹에서 별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신 성모님.


자비의 성모, 펠부아쟁

제 II 장

기도, 자비, 겸손

릴부샤르 · 펠부아쟁 · 느베르 · 4 – 5일차

전후의 소녀들, 치유받은 가정부, 그리고 베르나데트의 숨은 삶.


성모 발현지, 라살레트

제 III 장

눈물과 화해

푸르비에르 · 라살레트 · 르로 · 코티낙 · 6 – 9일차

성모님께 충실한 도시 리옹, 알프스의 '아름다운 부인', 목동 브누아트, 프로방스의 성모님과 성 요셉.


로시리오 대성당, 루르드

제 IV 장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아비뇽 · 미디 운하 · 루르드 · 10 – 13일차

노트르담 데 돔의 황금 성모상, 그리고 1858년 발현의 중심에서 보내는 이틀 밤.



베르나데트 수비루, *1861*년 사진

루르드, 발현 3년 뒤

열 개의 연도로 보는 다섯 세기

코티냑에서 펠부아쟁까지

이번 순례의 성지들이 태어난 결정적인 순간들.

1519 — **코티냑**

베르다유산에서 성모님께서 나무꾼 장 드 라 보므에게 나타나 성당을 지어 달라고 청하십니다.

1643 — **리옹의 서원**

흑사병의 위협 앞에서 리옹의 시 참사들이 도시를 푸르비에르 성모님의 보호에 맡깁니다.

1664 — **르로**

열일곱 살의 목동 브누아트 랑퀴렐이 한 부인을 봅니다. 발현은 쉰네 해 동안 이어집니다.

1830 — **뤼 뒤 박**

성모님께서 가타리나 라부레에게 나타나 기적의 메달을 맡기십니다.

1846 — **라살레트**

산속에서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부인'이 두 어린 목동에게 말씀하십니다.

1858 — **루르드**

베르나데트에게 열여덟 번 나타나신 성모님: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1871 — **퐁맹**

전쟁의 한가운데, 마옌의 한 마을 하늘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876 — **펠부아쟁**

죽음을 앞둔 에스텔 파게트가 열다섯 번의 발현과 자신의 치유를 증언합니다.

1947 — **릴부샤르**

네 소녀가 생질 성당에서 프랑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 — **펠부아쟁**

교황청이 자비의 성모 공경에 '장애 없음(Nihil obstat)' 판단을 내립니다.

열세 곳의 여정지,
성모님께 이르는 하나의 길

파리에서 피레네까지, 마옌과 베리, 알프스와 프로방스를 지나.



1 뤼 뒤 박

2일차



2 퐁맹

3일차



3 투르

3일차



4 펠부아쟁

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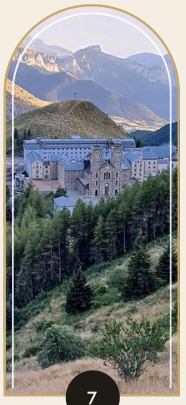
5 느베르

4 – 5일차



6 푸르비에르

6일차



7 라살레트

7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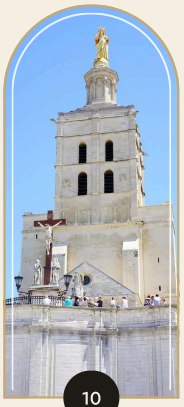
8 르로

8일차



9 코티냑

8 – 9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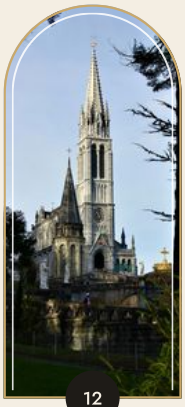
10 아비뇽

9 – 10일차



11 미디 운하

11일차



12 루르드

11 – 12일차



13 마사비엘 동굴

12일차

시골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웅장한 대성당까지, 성모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곳들.

13	8	11	2
일, 12박	성모 발현지	성모 성지	문화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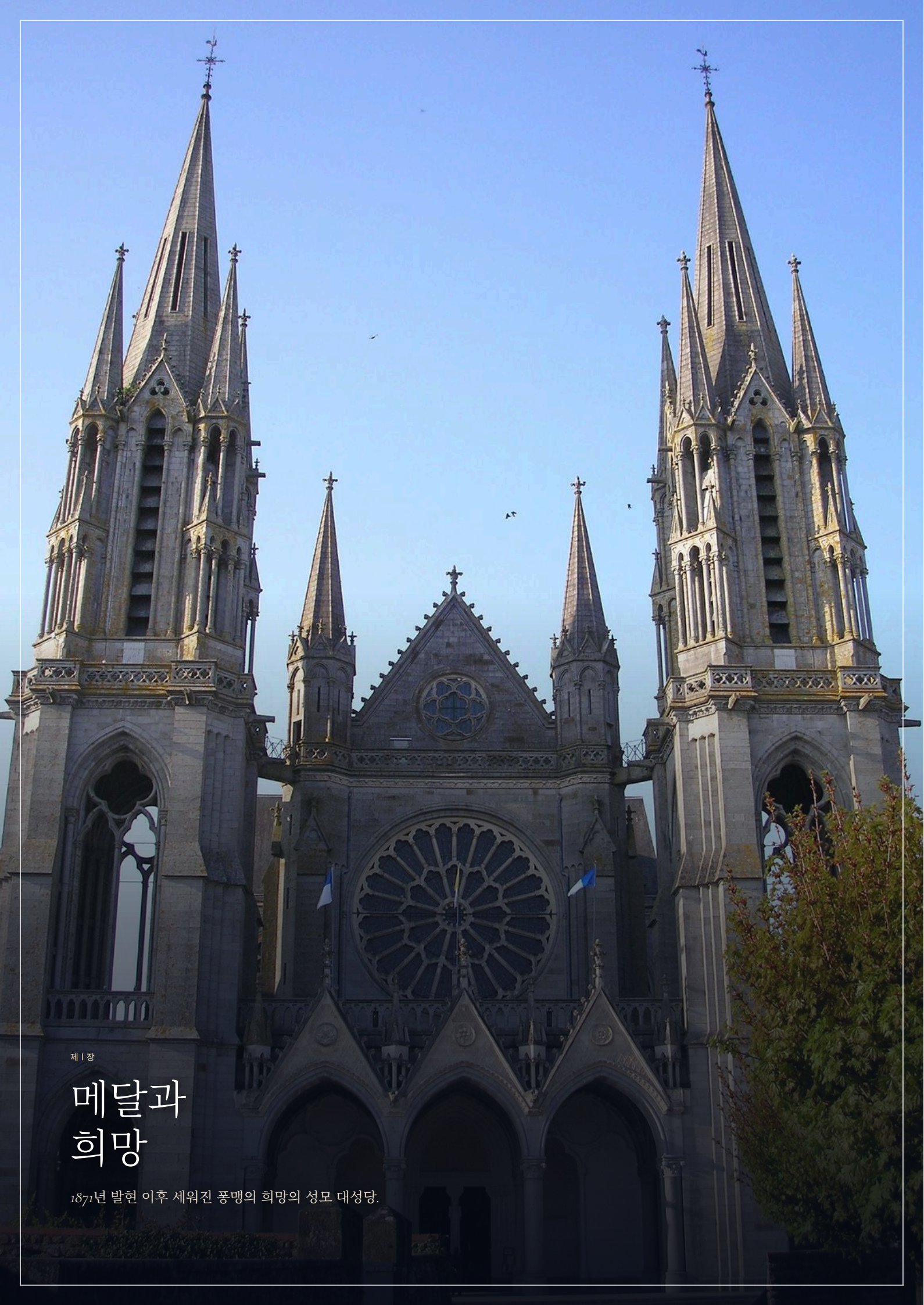


여행 경로

성모 성지를 잇는 위대한 순례길

12박 13일,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툴루즈 블라냑크 공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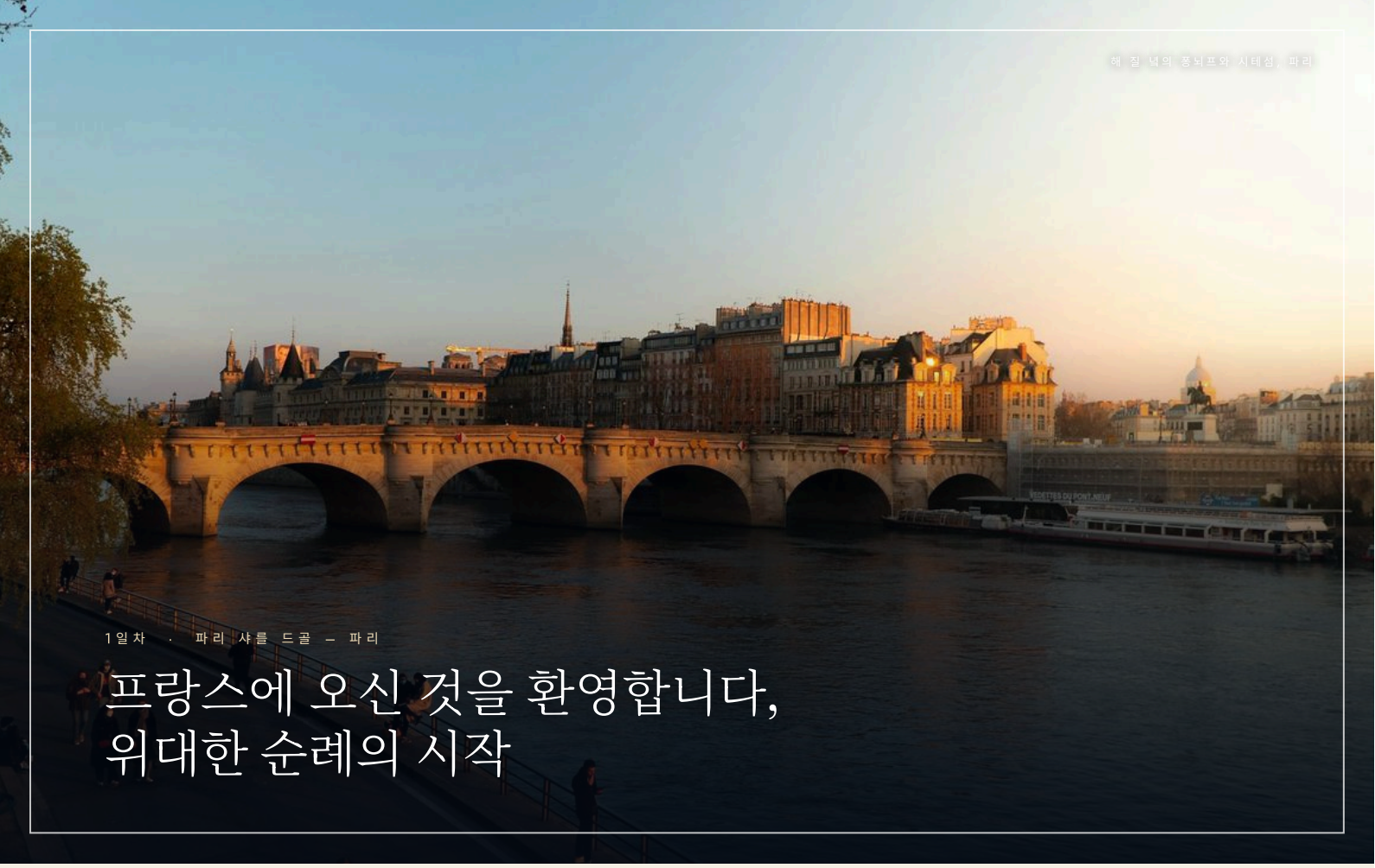
1	파리 1 – 2일차 · 1박	6	펠부아쟁 4일차 · 방문	11	갑 · 르로 7 – 8일차 · 1박
2	라발 2일차 · 1박	7	느베르 4 – 5일차 · 1박	12	코티냑 8 – 9일차 · 1박
3	퐁맹 3일차 · 방문	8	리옹 5 – 6일차 · 1박	13	아비뇽 9 – 10일차 · 1박
4	투르 3일차 · 1박	9	그르노블 6일차 · 1박	14	카르카손 10 – 11일차 · 1박
5	릴부샤르 4일차 · 방문	10	라살레트 7일차 · 방문	15	루르드 11 – 13일차 · 2박



제 I 장

메달과 희망

*1871*년 발현 이후 세워진 퐁맹의 희망의 성모 대성당.



해 질 녘의 퐁뇌프와 시테섬, 파리

1일차 · 파리 샤를 드골 — 파리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대한 순례의 시작

오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도착
영접 및 안내

오후
호텔까지 전용 차량 이동
체크인 및 휴식

저녁
환영 만찬
파리 숙박

성모님과 함께 걷는 *13*일 여정의 첫날 저녁.

일행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영접을 받은 뒤 **전용 차량**으로 호텔에 도착합니다. 오후에는 자유롭게 머물며 긴 비행의 피로를 풉니다.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순례자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서로를 알아 가고, 각자 마음에 품고 온 지향을 성모님께 맡겨 드리는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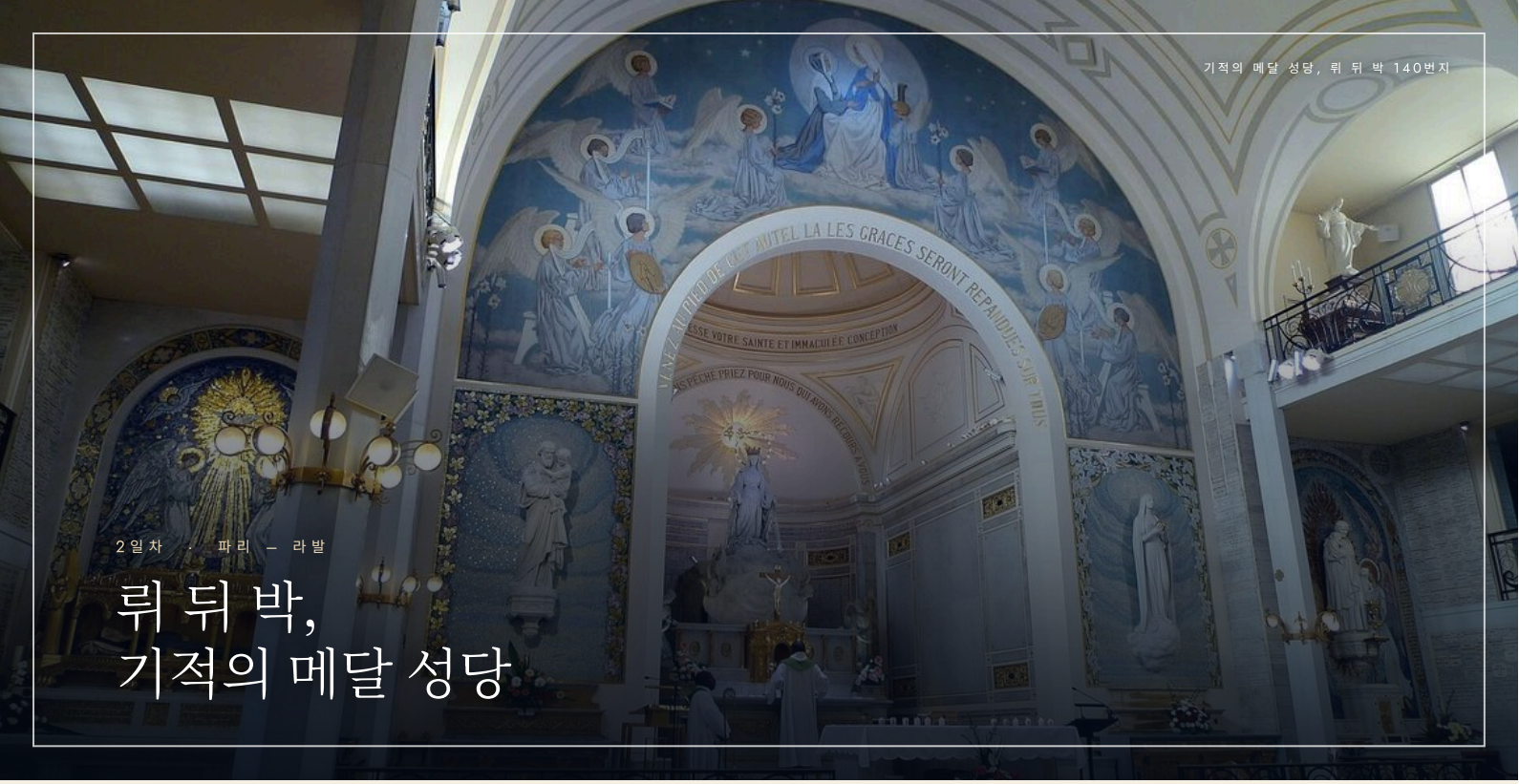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638

루이 *13*세의 서원으로 프랑스는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면 많은 성당에서 서원 행렬이 거행됩니다.



황혼의 센강, 파리



2일차 · 파리 — 라발

뤼 뒤 박,
기적의 메달 성당

오전	오후	저녁
기적의 메달 성당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의 유해함	승리의 성모 대성당 점심 식사 후 라발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라발 숙박

파리 한복판, 성모님께서 앉으셨던 성당.

뤼 뒤 박 140번지 안뜰 깊숙한 곳, 사랑의 딸회 성당에는 1830년 성모님께서 **가타리나 라부레** 곁에 앉으셨던 의자와 성녀가 잠들어 있는 **유해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구를 든 성모님의 제대 앞에서 고요히 머뭅니다.

승리의 성모 대성당의 벽은 수천 개의 **감사 봉헌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1836년 **데주네트** 신부가 신자들이 떠난 본당을 이곳에서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마엔 지방의 **라발**로 이동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887

로마 순례를 떠나기 전, 어린 데레사 마르탱(훗날 리지외의 성녀 소화 데레사)은 승리의 성모 대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큰 평화의 은총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성모님과 가타리나 라부레, 뤼 뒤 박의 조각


기적의 메달

가타리나 라부레와 기적의 메달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 1850년경 사진



지구를 든 성모상, 기적의 메달 성당

증인

1806년 부르고뉴의 농가에서 태어난 **가타리나 라부레**는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1830년 그녀는 뤼 뒤 박의 **사랑의 딸회**에 입회합니다. 스물네 살이었습니다.

발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 한 아이가 그녀를 깨워 성당으로 이끕니다. 성모님께서 사제석 의자에 앉으시고, 가타리나는 성모님의 무릎에 두 손을 얹은 채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11월 27일 저녁 기도 중, 성모님께서 지구 위에 서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두 손에서 빛줄기가 흘러나오고, 둘레에는 이런 기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뒷면에는 M 글자와 십자가, 두 개의 성심, 열두 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모님께서는 이 모습대로 **메달을 만들라**고 청하시며, 믿음으로 이를 지니는 모든 이에게 큰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1832년 콜레라가 창궐하던 중에 주조된 메달은 순식간에 퍼져 나가 사람들은 이를 **'기적의 메달'**이라 불렀습니다. 가타리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뒤 마흔여섯 해 동안 뢰이의 노인들을 섬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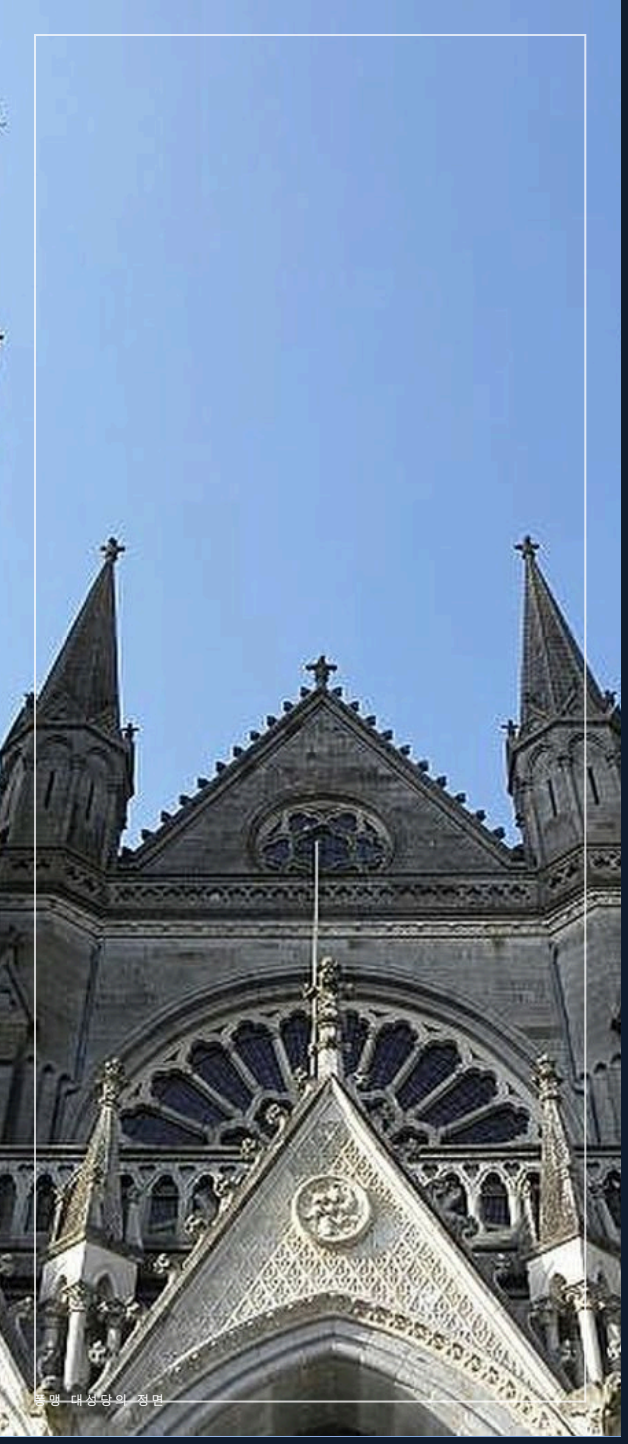
"이 제대 아래로 오너라. 이곳에서 신뢰와 열정으로 청하는 모든 이에게 은총이 쏟아질 것이다."

가타리나 라부레가 전한 말씀, 1830년 7월

교회의 가르침

1947

1836년 파리 대주교의 요청으로 시작된 조사를 거쳐, 교회는 1894년 기적의 메달 축일을 제정했습니다. 가타리나는 1947년 7월 27일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퐁맹 대성당의 정면



플뤼므로 광장의 목골 가옥들, 투르

3일차 · 라발 – 퐁맹 – 투르

퐁맹,
전쟁 한가운데의 성모님

오전	퐁맹 성지 희망의 성모 대성당
오후	점심 식사 후 투르로 이동 투렌 특산물 시식
저녁	체크인, 저녁 식사 투르 숙박

시골 마을, 겨울 하늘,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오전은 **퐁맹**에서 보냅니다. **희망의 성모 대성당**과 모든 일이 시작된 마을 광장에서, 다음 장에 소개되는 **1871년 1월 17일** 저녁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점심 식사 후 버스는 **투르**로 향합니다. 이른 저녁,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해설 시식**에서 **투르 누가**, **생트모르 드 투렌** 치즈, 루아르 계곡의 수공예 특산물을 맛봅니다. 저녁 식사 후 투르에서 숙박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1일

발현 이후 프로이센군은 라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전 협정은 그로부터 *11*일 뒤인 *1871*년 *1*월 *28*일에 체결되었습니다.

별빛 옷을 입으신 퐁맹의 성모님



퐁맹의 성모 발현,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



퐁맹 대성당의 신랑

증인

퐁맹은 브르타뉴 경계에 자리한 주민 오백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날 저녁, 열두 살 **외젠 바르브데트**와 열 살 동생 **조제프**는 헛간에서 아버지를 도와 가시금작화를 빻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 **프랑수아즈 리세**와 **잔마리 르보세**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현

저녁 여섯 시 무렵, 밖으로 나온 외젠은 한 집 위 하늘에서 미소 짓는 **아름다운 부인**을 봅니다. **금빛 별**이 가득한 푸른 옷, 검은 베일, 황금 관을 쓰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본당 신부 **게랭** 신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가를 부르게 합니다. 기도가 이어질수록 부인의 발아래로 띠가 펼쳐지고 금빛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어 부인 앞에 **붉은 십자가**가 솟아올랐고, 밤 아홉 시 무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메시지

프랑스는 점령당했고, 적군은 라발 코앞까지 와 있었으며, 거의 모든 가정의 아들이 전선에 나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 조제프 바르브데트는 형 외젠과 마찬가지로 사제가 되었습니다.

> “기도하여라, 나의 아이들아.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아들은 마음이 움직이신다.”
>
> 아이들이 하늘에서 읽은 말씀

교회의 가르침

1872

1872년 2월 2일, 라발의 위카르 주교는 조사를 거쳐 발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1873년부터 지어진 대성당은 퐁맹의 희망의 성모 대성당이 되었습니다.



제 I I 장

기도, 자비, 겸손

성녀 베르나데트가 살았던 느베르의 옛 생질다르 수녀원.

4일차 · 투르 – 릴부샤르 – 펠부아쟁 – 느베르

릴부샤르와 펠부아쟁, 기도와 자비

오전	오후	저녁
릴부샤르	점심 식사 후 펠부아쟁	느베르로 이동
생질 성당	자비의 성모 성지	저녁 식사, 느베르 숙박

고요한 두 성지, 오늘날에도 생생한 두 메시지.

투렌 남부, **릴부샤르의 생질 성당**은 1947년 12월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라**고 청하시는 성모님을 본 소녀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리 지방의 **펠부아쟁**은 의사들도 포기한 가정부 **에스텔 파게트**와, 1876년 그녀를 찾아오신 **자비의 성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발현이 있었던 방은 경당이 되었습니다. 이어 **느베르**로 이동해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5

에스텔 파게트가 *1876*년 *2*월부터 *12*월까지 증언한 발현 횟수입니다. 대부분 그녀의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비의 성모상, 펠부아쟁 성지

릴부샤르의 기도의 성모

배경

1947년 12월, 전쟁이 끝난 지 두 해 만에 프랑스는 **격렬한 총파업**으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비엔강 가의 작은 도시 릴부샤르에서도 삶은 고달팠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증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12월 8일**, 네 소녀가 생질 성당에 기도하러 갑니다. 열두 살 **자클린 오브리**, 일곱 살 동생 **잔**, 열 살 사촌 **니콜 로뱅**, 그리고 여덟 살 **로라 크루아종**이었습니다.

발현

성모 제대 곁에서 소녀들은 천사와 함께 계신 **빛나는 부인**을 봅니다. 부인은 **12월 14일**까지 날마다 다시 오셔서 소녀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십자가에 입 맞추라고 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라고 청하셨습니다.

따로따로 질문을 받았지만 소녀들의 증언은 서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파업은 끝났고, 생질 성당은 그때부터 프랑스를 위한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묵주를 든 성모자상, 상징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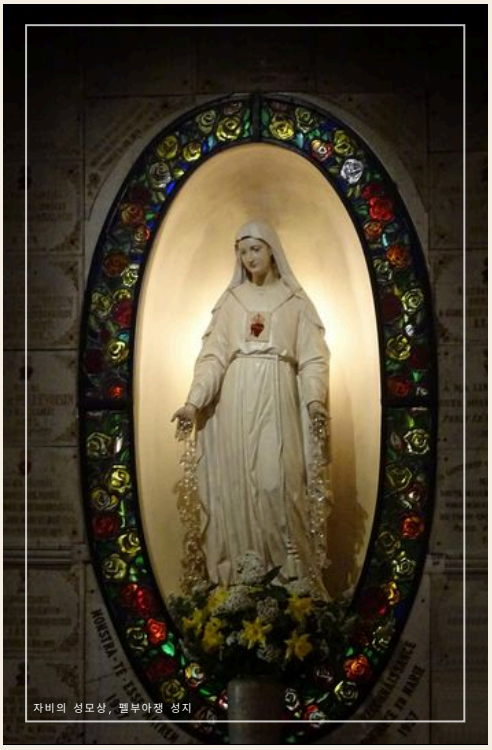
> “어린이들에게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라고 전하여라. 프랑스는 기도가 몹시 필요하다.”
>
> 소녀들이 전한 말씀, 1947년 12월

교회의 가르침

2001

2001년 12월 8일, 투르의 앙드레 뱅트루아 대주교는 기도의 성모께 드리는 순례와 공적 공경을 공식 허가하고, 신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에스텔 파게트와 자비의 어머니


자비의 성모상, 펠부아쟁 성지



에스텔 파게트의 감사 봉헌판, 1876년

증인

1843년 샹파뉴에서 태어난 **에스텔 파게트**는 펠부아쟁의 가정부였습니다. 1875년, 서른두 살의 그녀는 **폐결핵**과 복막염으로 앓아누웠고, 의사들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홀로 부양하던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편지와 치유

그녀는 **성모님께 편지**를 써서 성 정원의 작은 루르드 동굴에 놓아 둡니다. **1876년 2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 성모님께서 그녀의 침대 발치에 나타나십니다. **2월 19일**, 에스텔은 **치유되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가 새기게 한 감사 봉헌판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메시지

12월 8일까지 열다섯 번의 발현이 이어집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자비로운 이"**라 부르시며, 에스텔에게 **예수 성심 스카풀라**를 보여 주시고 이를 널리 전하라고 청하셨습니다. 에스텔은 그 뒤로 쉰세 해를 더 살다가 192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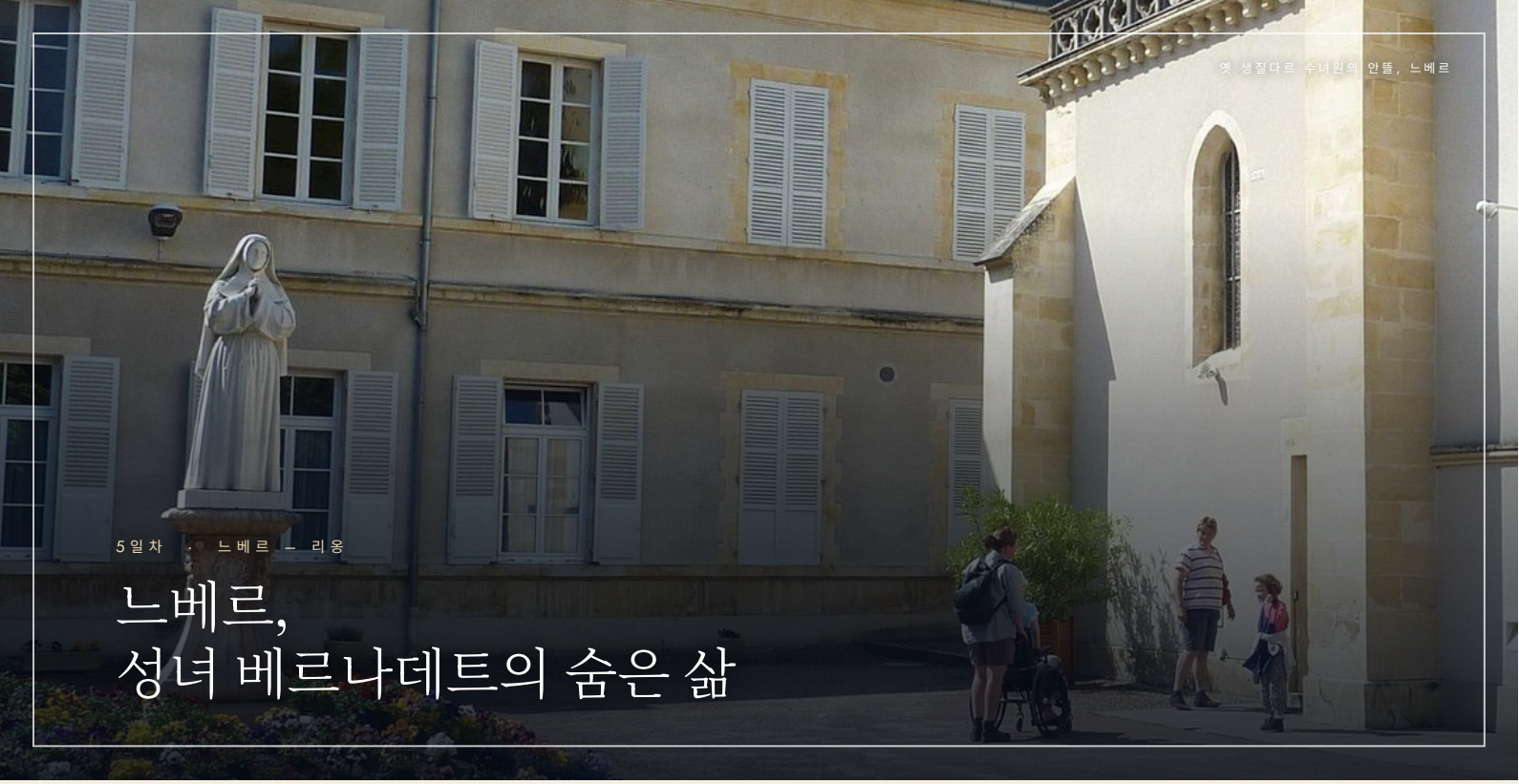
"나는 온전히 자비로우며, 내 아들 앞에서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에스텔 파게트가 전한 말씀, 1876년

교회의 가르침

2024

1983년 부르주 대주교는 에스텔의 치유를 기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9월, 교황청은 '장애 없음(Nihil obstat)' 판단을 내리고 자비의 성모 공경을 장려했습니다.



옛 생질다르 수녀원의 안뜰, 느베르

5일차 · 느베르 – 리옹

느베르,
성녀 베르나데트의 숨은 삶

오전	오후	저녁
베르나데트 기념관 옛 생질다르 수녀원	성당과 베르나데트의 유해함 점심 식사 후 리옹으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리옹 숙박

루르드의 빛 이후, 열세 해의 침묵.

1866년 7월,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루르드를 떠나 **느베르 애덕 수녀회**의 모원에 입회합니다. 그녀는 **마리 베르나르 수녀**가 되어 간호 보조와 제의실 일을 맡았고, 자주 병상에 누웠습니다.

옛 **생질다르 수녀원**의 **베르나데트 기념관**은 겸손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그 삶을 들려줍니다. 성당에서는 1925년부터 그녀가 잠들어 있는 **유해함** 앞에서 침묵 속에 머뭅니다. 여정의 끝에 루르드에서 이루어질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리옹**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숨기 위해’

“나는 숨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말입니다. *1879*년 서른다섯 살로 선종한 그녀는 *1933*년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얼굴과 두 손은 얇은 밀랍 가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유해함, 생질다르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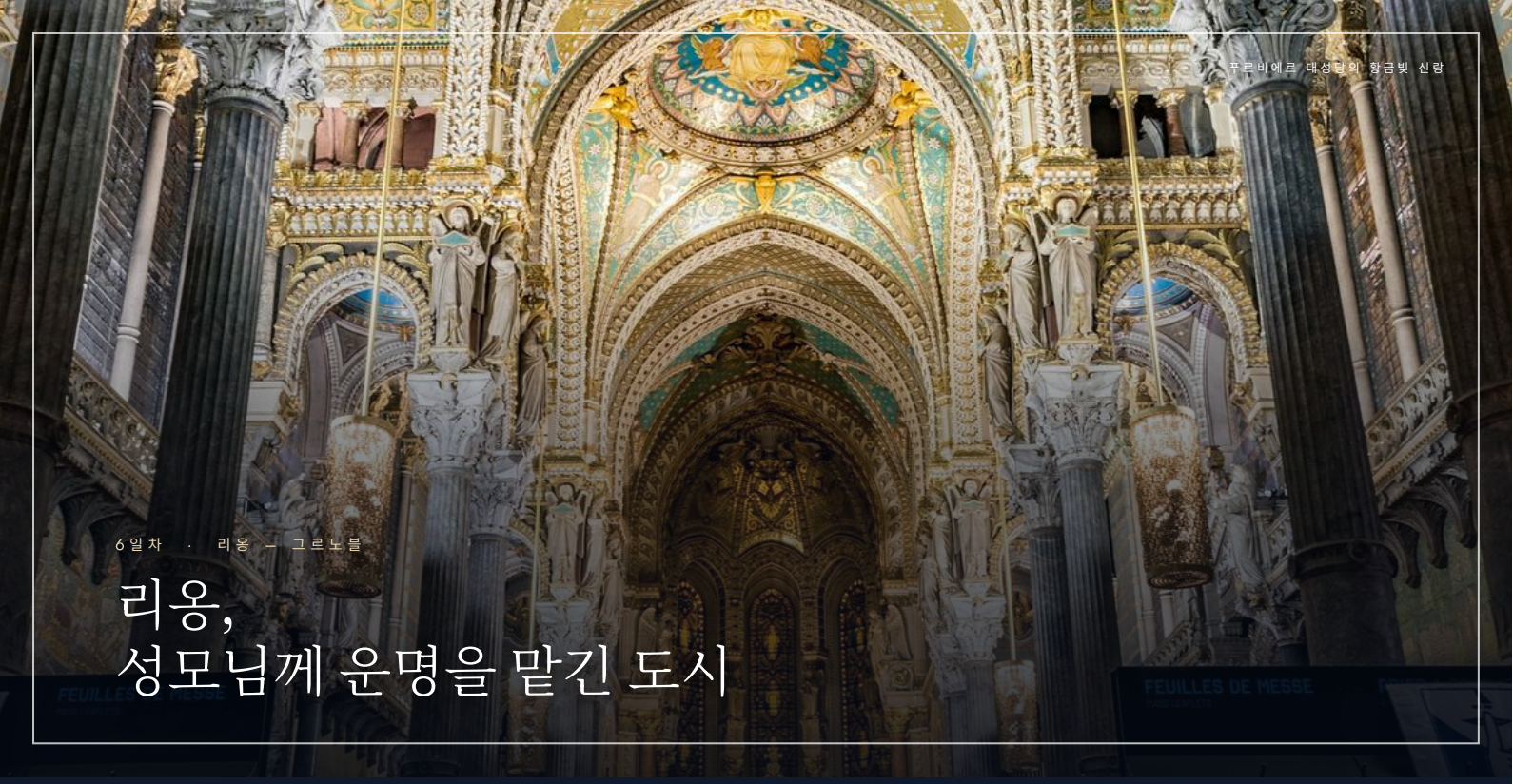
베르나데트 수비루, 역사 사진



제 I I I 장

눈물과 화해

리옹 언덕 위에 선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6일차 · 리옹 – 그르노블

리옹,
성모님께 운명을 맡긴 도시

오전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성모 경당

오후
점심 식사
그르노블로 이동

저녁
체크인, 저녁 식사
그르노블 숙박

알고 계셨나요?

1870

전쟁 중 리옹은 적군이 도시를 비켜 간다면 성모님께 대성당을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들어오지 않았고, *1872*년 곧바로 초석이 놓였습니다.

푸르비에르는 발현지가 아니라, 네 세기에 걸친 충실함의 자리입니다.

1643년, 흑사병이 리옹을 위협합니다. 시의 **참사들**은 해마다 **9월 8일** 푸르비에르에 올라 성모님께 초와 금화를 봉헌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도시는 화를 면했고, 그 서원은 오늘날까지 해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852년 12월 8일, 옛 경당 종탑에 금빛 성모상이 축복됩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창가에 등불을 밝혔고, 이것이 **빛의 축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와 황금빛 신랑으로 빛나는 **대성당**은 1870년의 새로운 서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르노블**로 이동합니다.



리옹과 푸르비에르 언덕



해발 1,800미터의 라살레트 성모 대성당

7일차 · 그르노블 — 라살레트 — 갑

라살레트,
눈물 흘리신 성모님의 메시지

오전	오후	저녁
라살레트 성모 성지 대성당과 발현지	묵상의 시간, 점심 식사 갑으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갑 또는 인근 숙박

해발 *1,800*미터, 산의 고요 속에서.

길은 **트리에브**의 산들을 굽이굽이 올라 고산 목초지가 원형 극장처럼 펼쳐진 **라살레트 성지**에 이릅니다. **대성당**은 1846년 9월 19일 눈물 흘리는 한 부인이 두 아이에게 말씀하신 자리를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비탈에는 발현의 세 순간을 새긴 **조각상**들이 서 있습니다. 앉아서 우시는 부인, 말씀하시는 부인,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는 부인. 순례와 **묵상**의 시간을 보내며, 가능하면 미사에도 참례합니다.

점심 식사 후 버스는 오트잘프 지방의 **갑**으로 내려갑니다.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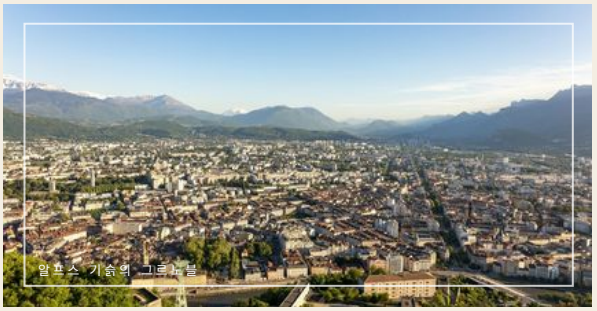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800m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순례지 가운데 하나인 이 성지의 해발 고도입니다. 가르가스산 기슭에 있습니다.



발현지의 성모 조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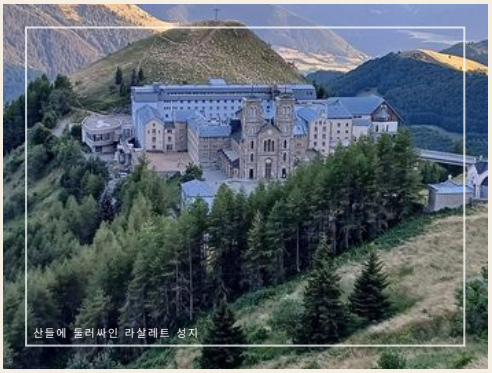


알프스 기슭의 그르노블

산속의 ‘아름다운 부인’



눈물 흘리는 성모상, 라살레트 발현지



산들에 둘러싸인 라살레트 성지

증인

열한 살 **막시맹 지로**와 열다섯 살이 다 된 **멜라니 칼바**는 농가에 고용된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둘 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고, 교리도 거의 알지 못했으며, 서로 알게 된 지 겨우 이틀째였습니다.

발현

그 토요일, 낮잠에서 깬 두 아이는 **빛의 구**를 봅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너라, 나의 아이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빛이 촘촘히 박힌 옷, 금빛 앞치마, 장미 관, 그리고 가슴에는 망치와 집게가 곁에 달린 **십자고상**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 프랑스어로 말씀하시다가, 멜라니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지방 방언**으로 말씀을 이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부인은 하늘로 오르시며 빛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메시지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잊은 백성을 두고 우셨습니다. 소홀히 여겨지는 주일, 모독당하는 아드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기근을 예고하시며 **기도**와 **회개**를 청하셨습니다. 이 **화해**의 메시지로 라살레트는 고해성사의 큰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 나의 아이들아, 이것을 나의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려라.”

막시맹과 멜라니가 전한 마지막 말씀

교회의 가르침

1851

1851년 9월 19일, 그르노블의 드 브뤼야르 주교는 5년간의 조사 끝에 이 발현이 “진리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성당은 1852년부터 건립되었습니다.



산기슭의 르로 성모 성지



르로 대성당의 제단

8일차 · 갑 – 르로 성모 성지 – 코티냑

르로,
성모님과 어린 목동

오전	르로 성모 성지 대성당과 기도처
오후	점심 식사 프로방스로 이동
저녁	체크인, 저녁 식사 코티냑 또는 인근 숙박

세 세기 동안 화해에 봉헌된 오트잘프의 골짜기.

오전은 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골짜기 끝의 **르로 성모 성지**에서 보냅니다. 이곳에서 **브누아트 랑퀴렐**은 쉰 해가 넘도록 성모님과 함께 살았고, 위대한 **고해성사**의 전통이 태어났습니다.

성모님의 청으로 지어진 **대성당**을 둘러보고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점심 식사 후 버스는 **프로방스**로 내려가, 절벽 기슭에 자리한 마을 **코티냑**에 이릅니다.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성유

르로의 감실 앞에는 등불 하나가 타오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기름을 쓰는 모든 이에게 치유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야기 · 르로, 1664 – 1718년

브누아트 랑퀴렐,
성모님과 함께한 쉰네 해

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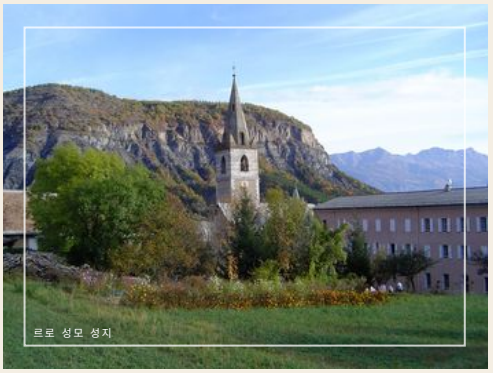
1647년 생테티엔다방송의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브누아트 랑퀴렐**은 일곱 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양 떼를 돌보며 어머니와 자매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쾌활하고 신심 깊었지만 글을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성모님과 브누아트 랑퀴렐 조각군

발현

1664년 5월, 열일곱 살의 그녀는 바위 위에서 아기를 안은 **아름다운 부인**을 봅니다. 부인은 넉 달 동안 날마다 다시 오셨고, 마침내 이름을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마리아 부인**이다."

이어 부인은 그녀를 **르로**의 작은 경당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그윽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브누아트는 **171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날마다 그곳에서 성모님을 뵈었습니다. 그 기간만으로도 유례가 없는 발현입니다.


르로 성모 성지

메시지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성당**과 사제들의 집을 청하셨습니다. 브누아트는 순례자들을 맞이하며 **고해성사**와 회개를 권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화해는 이 성지의 심장입니다.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이곳을 내 아들에게 청하였고, 아들은 이를 내게 허락하였다."

브누아트 랑퀴렐이 전한 말씀

교회의 가르침

2008

2008년 5월 4일, 갑·앙브룅 교구의 장미셸 디 팔코 레앙드리 주교는 르로의 발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09년 브누아트는 가경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코티냑,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오전	오후	저녁
은총의 성모 성지 베르다유산	베시용의 성 요셉 성지 점심 식사 후 아비뇽으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아비뇽 숙박

전승이 성모님과 성 요셉의 발현을 함께 전하는 프랑스 유일의 장소.

아침에는 **베르다유산**에 올라 1519년의 발현 전승에서 태어난 **은총의 성모 성지**를 찾습니다. 이어 맞은편 비탈에서 1660년 성 요셉의 발현과 이어진 **베시용의 성 요셉 수도원**과 그 샘을 만납니다.

전승이 **성가정**, 그리고 루이 14세의 탄생과 연결 짓는, 서로를 비추는 두 성지입니다. 점심 식사 후 **아비뇽**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660

그해 *2*월, 젊은 루이 *14*세가 은총의 성모께 감사드리러 코티냑을 찾았습니다. 넉 달 뒤, 가까운 베시용에 성 요셉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프로방스의 코티냑 마을

은총의 성모 성지, 코티냑

이야기 · 코티낙, 1519년과 1660년

은총의 성모와 베시용의 성 요셉

은총의 성모

성지의 전승에 따르면 **1519년 8월 10일**, 나무꾼 **장 드 라 보므**가 베르다유산에서 구름 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을 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직자들과 시 참사들에게 '은총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성당**을 지으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튿날 같은 환시가 되풀이되었고, 경당은 그해에 세워졌습니다.



은총의 성모, 성지의 성화

성모님과 국왕

1637년 파리의 수도자 **피아크르 수사**는 성모님께서 결혼한 지 스물두 해가 되도록 자녀가 없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아들을 얻도록 9일 기도를 바치라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코티낙에서 바쳐졌습니다. 1638년 9월 **루이 14세**가 태어났고, 1660년 그는 이곳을 순례하며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 요셉

1660년 6월 7일, 스물두 살의 목동 **가스파르 리카르**는 베시용에서 갈증으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바위를 들어라. 그러면 물을 마실 것이다." 훗날 장정 여덟 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바위 아래에서 **샘**이 솟아났고, 그 샘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성 요셉상, 베시용

"나는 요셉이다. 이 바위를 들어라. 그러면 물을 마실 것이다."

베시용 전승에 따라 가스파르 리카르가 전한 말씀

교회의 가르침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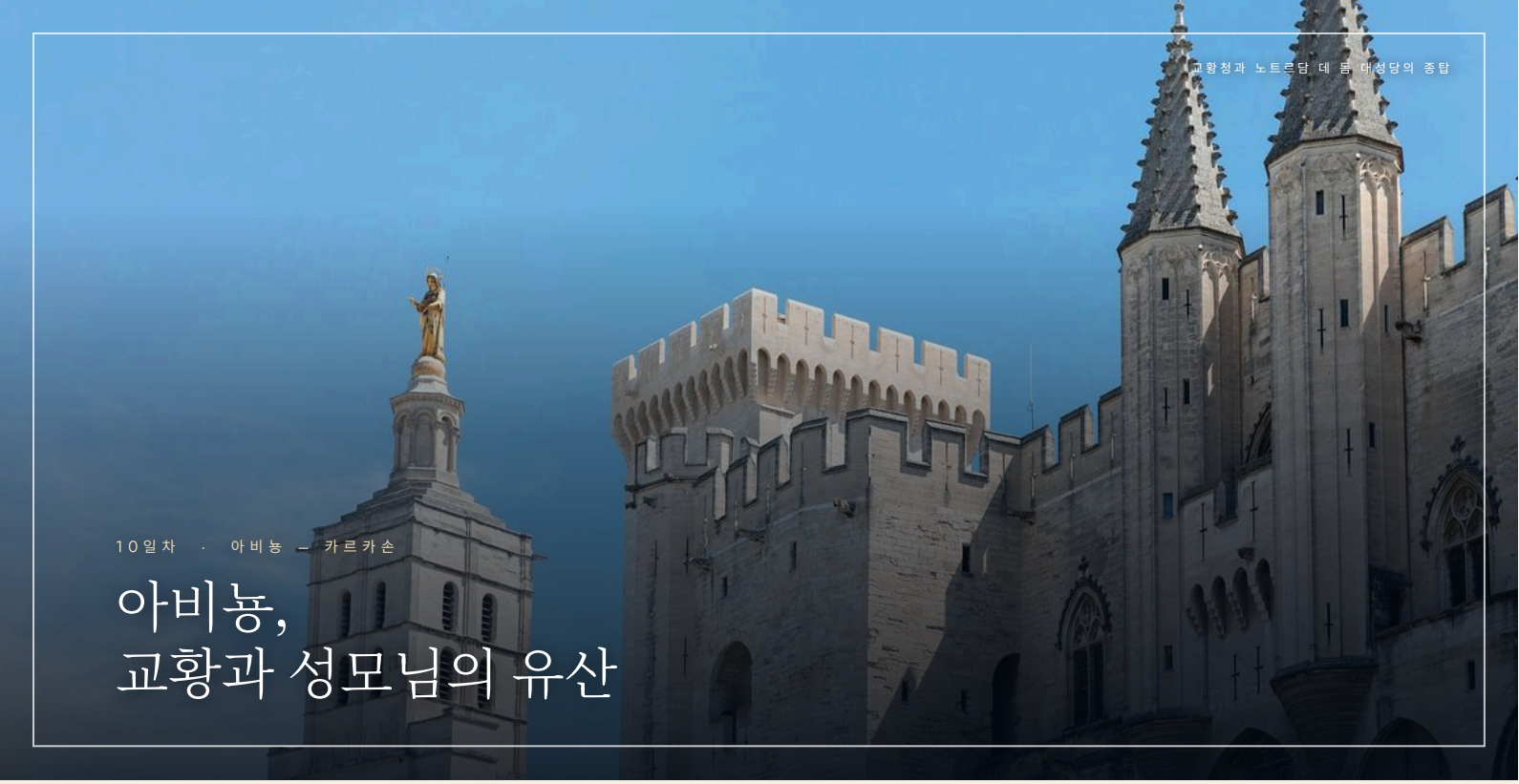
은총의 성모 공경은 1519년부터 기록으로 전해지며, 17세기에 오라토리오회에 맡겨졌습니다. 오늘날 은총의 성모 성지에서는 성 요한 수도회 형제들이, 베시용에서는 베네딕도회 수녀들이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제 I V 장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황혼의 아비뇽과 론강, 교황청과 노트르담 데 돔 대성당.



교황청과 노트르담 데 돔 대성당의 종탑

10일차 · 아비뇽 — 카르카손

아비뇽,
교황과 성모님의 유산

오전	오후	저녁
교황청 관람 옛 교황 거처	노트르담 데 돔 대성당 점심 식사 후 카르카손으로 이동	체크인, 저녁 식사 카르카손 숙박

*14*세기, 그리스도교 세계의 심장이 뛰었던 도시.

14세기, 교황들이 론강 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고딕 궁전인 **교황청**은 웅장한 연회장에서 프레스코화로 꾸며진 경당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놀라운 한 장을 들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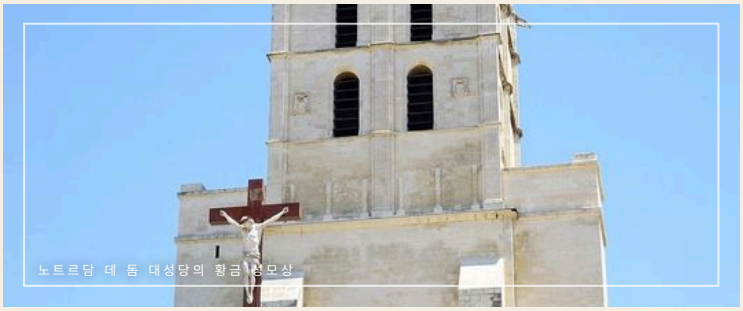
그 곁의 로마네스크 양식 **노트르담 데 돔 대성당**은 12세기부터 성모님께 봉헌되어 왔습니다. 1859년부터 종탑 위에서는 거대한 **황금 성모상**이 도시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루르드에서 울려 퍼질 **원죄 없는 잉태** 교의가 선포된 직후에 세워진 상입니다.

점심 식사 후 **카르카손**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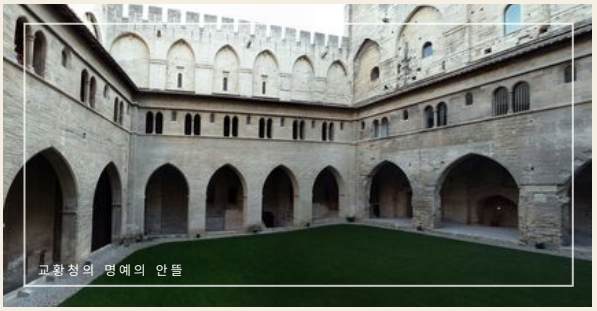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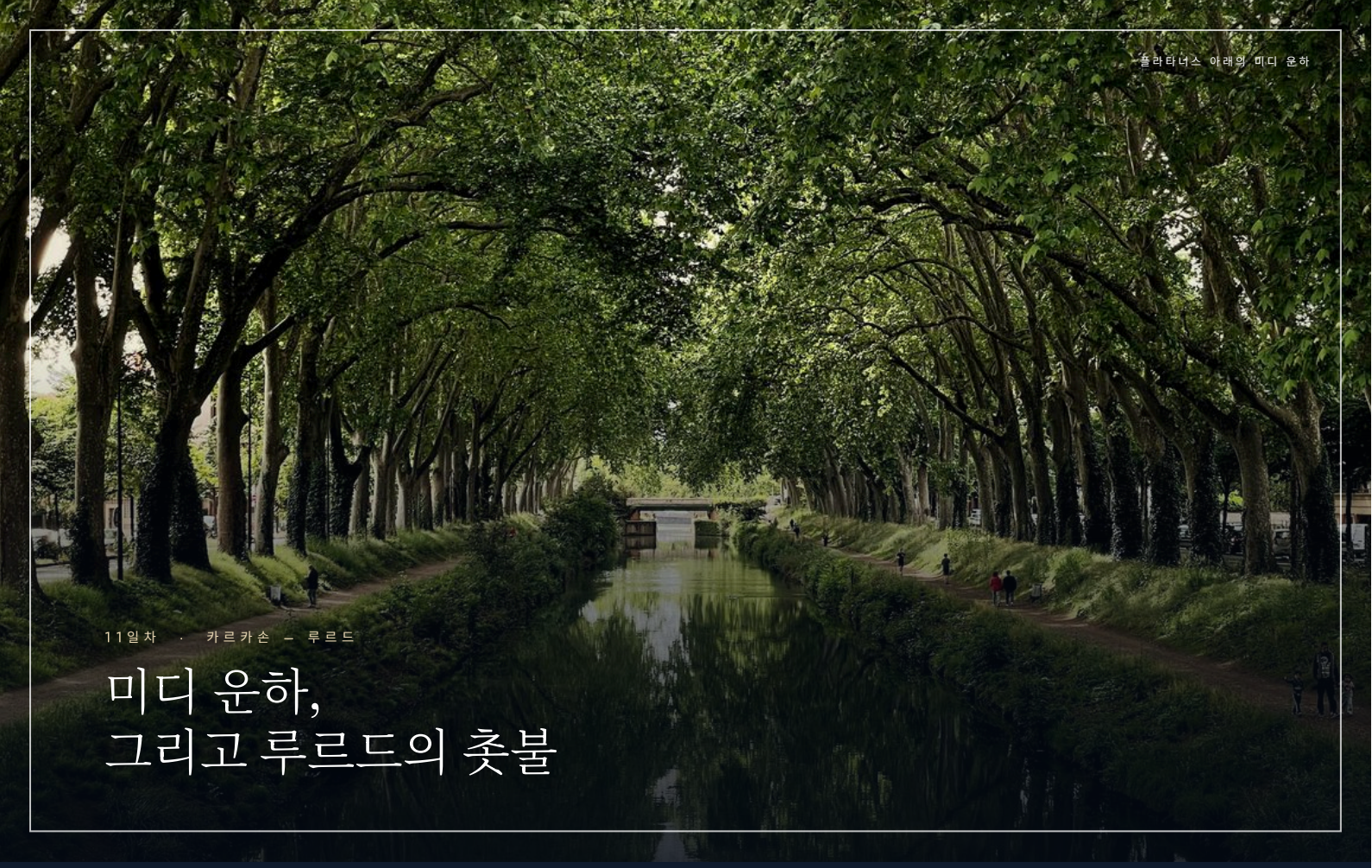
비오 *9*세 교황이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선포했습니다. *4*년 뒤 루르드에서 부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노트르담 데 돔 대성당의 황금 성모상



교황청의 명예의 안뜰



11일차 · 카르카손 – 루르드

미디 운하, 그리고 루르드의 촛불

오전	오후	저녁
미디 운하 해설 유람선	카르카손에서 점심 식사	21시 성모 촛불 행렬
유네스코 세계유산	루르드로 이동, 체크인	루르드 숙박

물 위에서 보내는 오전, 촛불 아래의 첫 저녁.

아침에는 **해설 유람선**을 타고 17세기의 걸작 **미디 운하**를 따라 플라타너스와 갑문, 수로 시설 사이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온전히 영적인 마지막 이틀을 앞둔 평온한 시간입니다.

카르카손에서 점심 식사 후 **루르드**로 이동해 체크인하고 휴식합니다. 저녁 식사 후 **21시**에는 성지의 일정에 따라 **성모 촛불 행렬**에 함께합니다. 성지의 다른 곳들은 이튿날 만나게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1681

피에르폴 리케가 설계한 이 운하는 *240*킬로미터에 걸쳐 가론강과 지중해를 잇습니다. *1996*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 질 녘의 카르카손 성채 도시



12일차 · 루르드

1858년 발현의 한가운데에서

동굴의 성모 발현, 루르드 성지의 스테인드글라스.



마사비엘 동굴

12일차 · 루르드

마사비엘 동굴에서 보내는 온전한 하루

오전	오후	저녁
마사비엘 동굴 미사와 고해성사 가능	대성당들, 샘물 예식 베르나데트의 삶의 자취	일정에 따른 촛불 행렬 루르드 둘째 밤

알고 계셨나요?

70+

*1858*년 이후 엄격한 의학적·교회법적 심사를 거쳐 교회가 기적으로 인정한 치유의 수입니다.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말씀하신 곳에서, 성지의 리듬에 맞추어.

이날은 온전히 **루르드 성모 성지**에서 보냅니다. 그 중심에는 **마사비엘 동굴**이 있고, 그 둘레에 **원죄 없는 잉태 대성당**, **로사리오 대성당**, 그리고 지하의 **성 비오 10세 대성당**이 자리합니다.

일정과 일행의 바람에 따라 **미사**, 고해성사, **샘물 예식**과 침수, 촛불 봉헌,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베르나데트의 삶의 자취인 **카쇼**와 **볼리 방앗간**을 찾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행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루브강 가의 성지, 루르드

이야기 · 루르드, 1858년 2월 11일 – 7월 16일

베르나데트와 원죄 없는 잉태



베르나데트 수비루, 1861년 사진



성녀 베르나데트, 스테인드글라스

증인

몰락한 방앗간 주인의 맏딸 **베르나데트 수비루**는 열네 살이었습니다. 천식을 앓았고 글을 몰랐으며, 아직 교리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섯 식구는 버려진 옛 감옥인 **카쇼**에서 살았습니다.

발현

2월 11일, 땔감을 주우러 나간 그녀는 마사비엘 바위 틈에서 흰옷에 푸른 띠를 두르고 두 발에 노란 장미를 얹은 **"작은 젊은 부인"**을 봅니다. 열여덟 번의 발현이 이어집니다. 2월 25일, 부인은 그녀에게 땅을 파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았습니다.

경찰서장과 검사, 그리고 페라말 본당 신부의 심문을 받으면서도 베르나데트의 말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 부인은 그 지방 방언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Que soy era Immaculada Councepciou**(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그 뜻을 알지 못한 베르나데트는 잊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메시지

기도, 죄인들을 위한 **보속**, 그리고 행렬로 찾아올 경당. 마지막으로, 4년 전 비오 9세가 선포한 교의를 확인해 주는 하나의 이름.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세상에서는 행복하게 해 주겠다."

베르나데트가 전한 말씀, 1858년 2월 18일

교회의 가르침

1862

1862년 1월 18일, 타르브의 로랑스 주교는 4년간의 조사 끝에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참으로 발현하셨다고 선언하고 동굴에서의 공경을 허가했습니다.

성지를 만나는 열두 가지 길

하루 내내 서두르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체험들.



대성당 문 위의 묵주기도의 성모

01 **마사비엘 동굴**
1858년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에게 나타나신 자리에 머물기.

02 **원죄 없는 잉태 대성당**
동굴 위에 세워진 대성당을 둘러보기.

03 **로사리오 대성당**
묵주기도 신비를 담은 모자이크를 바라보기.

04 **성 비오 10세 대성당**
큰 전례가 거행되는 지하 대성당에 들어가기.

05 **미사**
전례력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기.

06 **고해성사**
원하는 이는 화해의 성사를 받기.

07 **샘물 예식**
샘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기.

08 **침수**
성지의 이용 조건에 따라 참여하기.

09 **촛불 봉헌**
개인의 기도로 초 하나를 밝히기.

10 **카쇼**
수비루 가족이 살았던 옛 감옥에 들어가 보기.

11 **볼리 방앗간**
시간이 허락하면 베르나데트의 생가를 찾기.

12 **촛불 행렬**
일정에 따라 저녁 행렬에 다시 함께하기.

일정과 일행의 바람에 따라, 각자 마음에 가장 와닿는 순간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동굴 위에 선 대성당, 루르드

13일차 · 루르드 — 툴루즈 블라냑크

안녕, 루르드, 성모님의 눈길 아래

오전	오후	저녁
호텔 조식	전용 버스 이동	탑승 수속 지원
항공편에 따라 동굴 마지막 방문	툴루즈 블라냑크 공항으로	여행 종료

순례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갈 메시지.

조식 후, 버스는 항공편 시간에 맞추어 약 2시간 거리의 **툴루즈 블라냑크** 국제공항으로 일행을 모십니다.

탑승 수속 지원과 함께 여행을 마칩니다. 뤼 뒤 박에서 마사비엘까지, 저마다 성모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안고 돌아갑니다. **기도**, **회개**, **신뢰**, 그리고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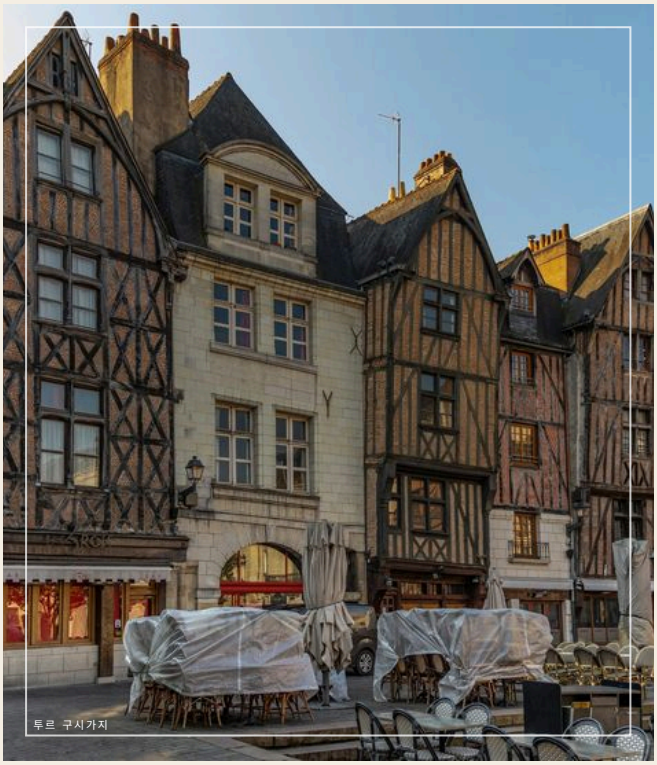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8

*13*일 동안 만나는 발현지의 수입니다. *1519*년부터 *1947*년까지, 성모님과 프랑스가 만나 온 다섯 세기입니다.

두 가지
문화 체험

무엇보다 순례인 이 여정을 위해
정성껏 고른 두 번의 쉼표.


투르 구시가지

I

3일차 · 투르, 늦은 오후

미식의 고장 투렌

루아르 계곡의 대표 특산물을 맛보는 약 1시간의 해설 시식입니다. 설탕에 절인 과일과 아몬드를 넣은 **투르 누가**, 가운데 꽂힌 지푸라기로 알아볼 수 있는 산양유 치즈 **생트모르드 투렌**, 그리고 이 지방의 여러 수공예 특산물을 만납니다.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는 고장의 솜씨를 음미하는 정겨운 시간입니다.


미디 운하

2

11일차 · 카르카손, 오전

미디 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17세기의 위대한 건축물 위에서 즐기는 **해설 유람선**입니다. 갑문과 돌다리,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한없이 부드러운 풍경을 이룹니다.

루르드에서의 이틀을 앞두고 물 위에서 누리는 고요한 쉼표입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순례 여정

모두가 본질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와 발견,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교통 및 안내

-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영접 및 안내
- 파리 호텔까지 전용 차량 이동
-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
- 툴루즈 블라냐크 공항까지 마지막 이동 및 탑승 수속 지원

방문 및 체험

- 일정에 포함된 성지, 대성당, 순례지
- 아비뇽 교황청 관람
- 투렌 특산물 해설 시식
- 미디 운하 해설 유람선

숙박

- 엄선한 호텔에서 12박
- 4성급·5성급 프리미엄 호텔, 선택지가 제한된 지역은 그에 준하는 수준
- 루르드 2박, 온전한 순례의 하루 포함

영적인 순간

- 파리 환영 만찬
- 기도 시간 및 성지 일정에 따른 전례 참례
- 시기에 따른 루르드 성모 촛불 행렬

미사, 행렬, 전례 시간은 각 성지의 일정에 따르며 여행 준비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버스 이동 경로는 현지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Daryl Edwin / Unsplash · Nick Castelli / Unsplash Unsplash License · Jean-Louis Zimmermann / Commons CC BY 2.0 · Esves-37240 / Commons CC BY-SA 4.0 · Tylwyth Eldar / Commons CC BY-SA 4.0 · Moahim / Commons CC BY-SA 4.0 · Thomon / Commons CC BY-SA 4.0 · Ikmo-ned / Commons GFDL · Jordi Vich Navarro / Unsplash · Unsplash · Dawid2009 / Commons CC BY-SA 4.0 · moi-même / Commons GFDL · FredSeiller / Commons CC0 · Nicolas Gaborit / Unsplash · Bastien Nvs / Unsplash · Diego Castañeda / Unsplash · jean-louis Zimmermann / Flickr CC BY 2.0 · GO69 / Commons CC0 · GO69 / Commons CC BY-SA 4.0 · jarmoluk / Pixabay · Ludovic Charlet / Unsplash · Elliot Gouy / Unsplash · AntonyB / Commons CC BY-SA 3.0 · Junipero Verbeke / Unsplash · FERNANDES Gilbert / Commons CC0 · Joël Vogt / Unsplash · Ryan Klaus / Unsplash · Tom Podmore / Unsplash · David Billington / Unsplash · Nick Castelli / Unsplash · paul_henri / Pixabay · Tim Oun / Unsplash · Celeda / Commons CC BY-SA 4.0 · Michael / Unsplash.



성모님의 길 위에서

믿음과 희망의 여정

뤼 뒤 박의 발현에서 라살레트의 산들까지, 퐁맹과 펠부아쟁의 마을에서 마사비엘 동굴까지. 이 위대한 순례는 성모 마리아 공경이 프랑스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곳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가타리나 라부레, 베르나데트 수비루, 에스텔 파게트, 그리고 다른 증인들을 통해, 각 여정지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온 기도와 회개,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성모 성지 한가운데에서 보내는 13일. 역사와 영성, 그리고 성모님과의 만남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